



## 기후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재정책 추진

-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민간 방재전문단체로서 역할과 책임 다해 주길...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터뷰

**프로필** : 1955년 대구 태생으로 대구 영남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2003년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에 소방간부후보생 제2기로 소방직에 투신한 이래 소방방재청에서 대응기획과장, 소방정책국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차장의 요직을 거쳐 2011년 7월 22일 청장으로 취임하였다.

## INTERVIEW

이기환소방방재청장의 인터뷰는 당초 2011년 9월 7일(수) 오후 5시 청장집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장의 공식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서울파이낸스센타 지하 중식당에서 저녁식사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금번 인터뷰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강병화 방재협회장(5월 21일 취임)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두 기관 간의 공식적인 만남임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청장을 비롯하여 재난상황실장 최규봉, 대변인 성기석, 비서실장 최낙영의 4명 그리고 방재협회에서는 강병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여운광, 편집위원장 박성제, 교육홍보실장 김영희의 4명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방재청장 인터뷰는 공식적으로 묻고 답하는 대담 형식보다는 다수가 편안하게 환담을 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정리: 편집위원장 박성제)



### 1. 소방방재청장으로서 방재대책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 먼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소방업무와 차장 때부터 추진해 온 연장선상에서 종합방재대책을 추진하여 인명피해의 예방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재난 안전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 청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정신없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정상업무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화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 소외계층의 재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2.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 라인을 재설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국가방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와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우, 폭설, 가뭄 등 극한 기상현황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8.23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수량은 향후 2040년에 평균 10%, 2070년 10%, 2100년에는 15%가 증가하고, 해수면 상승도 2100년까지 평균 3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풍속, 강설,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2040년, 2070년, 2100년의 3 단계로 나누어 목표기간별로 설계 변동량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미래 목표기간별 평균 기본하중도 변화율>

구 분	목표기간 구분			비 고
	2011-2040	2041-2070	2071-2100	
확률강우량	+10.00%	+10.00%	+15.00%	1일 우량
	+15.00%	+20.00%	+20.00%	시우량
확률적설량	-10.00%	-20.00%	-30.00%	최심신일적설량
기본풍속	+5m/s	+5m/s	+5m/s	중부내륙지역 (10분 평균풍속)
	+10m/s	+10m/s	+10m/s	남부내륙지역 (10분 평균풍속)
해수면 상승량	+10 cm	+20 cm	+30 cm	

※ 현행 평균 확률강우량(100년 빈도) : 306mm/일, 67mm/h, 평균 확률적설량(100년 빈도) : 30.4cm

- 따라서 연구용역의 결과와 지난 23일 국제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기후변화에 대한 방재정책으로 실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국가방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작년 9월과 금년 7월의 수도권 집중폭우로 도심침수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관련 대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수도권지역 집중호우 이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피해지역 원인조사(10.10.21~10.25)를 실시하고 중앙합동개선기획단을 운영(10.11.1~12.2)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기준 재설정을 포함한「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 7.26~29일간 대규모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개선 TF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TF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개선과제를 포함한 도시방재 기능 개선 및 시설확충 등 구조적인 대책과 통합적·선제적 방재기준, 선진형 재난 대응·복구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INTERVIEW



4. 기후변화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에 대비하는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재가 주민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재가 국민들에게 스스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 국민들이 금년 7월의 춘천 산사태와 우면산 산사태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 방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은마아파트가 침수되면 쉬쉬하는 분위기가 때로는 있었습다. 이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이 우리의 가까이에 상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재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친숙하게 접근이 가능한 방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각종의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은 청장님께서 일정한 교육과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된 기술인력(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전문기술인력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어 성과품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역량 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되면서 각종 방재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 '11.8월말 현재 등록 대행자(법인) 203개, 방재전문인력 1,751명 양성
  - ※ 사업 수주 물량 : 총 2,744건, 1,851억원('07년 ~ '11.6월)
- 그러나, 기술인력(방재전문인력)이 대행자(법인) 등록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실제 용역에 투입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전문인력의 실적 및 경력을 관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하는 등 주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대행자(법인) 스스로 더 많은 방재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와 비례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역량제고 및 방재안전대책 성과 품질의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실제참여 방재전문인력 : 사업 전체 기술인력 중 28% 정도
- 또한 대행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대책도 역시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대행자 업무 : 현행 4개 업무에서 추가 가능한 업무 검토 중



6. 청장께서 바라는 한국방재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 자연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방재협회는 소방방재청 소관법률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유일한 특수법인으로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의 자연재해는 극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그 양상이 대형화되고 예측이 점점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협력 체계의 재난관리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방재협회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한국방재협회 연혁

- 1999. 2. 18 : 행정자치부장관 설립 허가
- 2006. 6. 8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 2006. 8. 8 : 방재전문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소방방재청장)
- 2010. 3. 31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유치(소방방재청장)

※ 특별회원 173개, 단체회원 60개, 개인회원 1,298명

- 방재협회가 극한 기상대비 재해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해 협회의 주요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방재청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재를 다루면서 국민과 단체와 제도권을 연결시키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조사 및 기술자문, 연구개발 등 총체적인 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경쟁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민간 방재전문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장께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은?

-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태풍 “메아리”와 “무이파” 등 예년에 없던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소방방재청의 기본목표는 재난 총괄기관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예방조치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제는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곳의 사고까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INTERVIEW

- 아무쪼록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인 10월 15일까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3대 소방가족으로 유명합니다. 소방직을 가업으로 잇게 된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 선친께서 40년간 소방관 생활을 하다가 구미소방서장 시절에 소방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저는 소방직을 시작한지 이제 34년이 되었고 아들 녀석은 겨우 1년 남짓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3대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저는 어릴적부터 거의 매일 제복을 입고 비상근무를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제복공무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소방공무원이 되었습니다.
-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야근하면서 집에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 녀석도 자기는 절대로 소방공무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랬던 그가 덜컥 소방공무원이 되었어요. 소방공무원 모집공고가 나고 나서 제가 원서나 한번 내 보라고 권했는데 합격을 하였습니다.
- 아들이 처음에는 수시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직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일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조직에 적응을 하면서 훈련이 제일 세다고 소문이 난 중앙119구조대에 지원을 하려고 하더군요. 중앙119구조대는 소방직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라서 보통 가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 저는 이런 아들 녀석을 보면서 저의 선친이 뿌린 씨앗이 아들대까지 3대가 이어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반드시 소방직이 아니더라도 3대가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위험에 빠진 국민을 도우는 것이 직업인 소방직은 더욱 그렇습니다.
- 미국에서는 소방관 즉 fire fighter는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중의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하는 소방직이 가장 존경 받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저의 아들 그리고 돌아가신 저의 선친께서도 3대에 걸친 소방가족임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